



## 제 3 장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 관리 및 공유



##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참여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 부장

프랭크 프로스찬

유네스코 문화담당관

이 발표의 제목은 곧바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왜 자신들의 무형 문화유산 기록<sup>documentation</sup>을 위해 공동체가 참여해야 하는가? 기록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르네 마그리트는 이 유명한 파이프 그림에서 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었는가? 단순히 대담하자면, 이것은 불을 붙일 수도 필 수도 없는 파이프 그림일 따름이며, 이러한 표상을 통해 우리는 오직 상상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형문화유산 기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록 그 자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2003년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물론 이 '기록'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 열 두 가지의 방법 목록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협약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오직 무형문화유산의 생존(*viability*)을 보장할 때에만 보호 수단으로 고려되도록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록은 생존을 보장하는 보호 수단이 아니다 — 기록은 단순히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이며, 유산을 고정된 형식으로 동결시키는 보존 방식이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록이라는 행위가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공동체들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여기는 연행, 표상, 표현,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든 물리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일종의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장되는 0과 1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에 대한 욕구는 글을 쓰는 행위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여러 요소들 중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다. 태국 칼라신 지방에서 아름다운 프레 와(*Phrae Wa*) 비단 직물을 만드는 반 폰(*Ban Pone*)의 여인들은 ‘태국 비단의 여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일례로 들어보자. 반 폰의 거주민들은 두 세기 전 베트남 북서부에서 그들의 푸 타이(*Pu Thai*) 언어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은 근방인 태국 북동부의 여타 민족들의 전통 의상과는 다른 복식 양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화려한 ‘프레 와’ 직조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주할 때 가지고 온 또 다른 것이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파 새오(*pha saew*)’가 그것이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딸, 손녀 그리고 증손녀들에게 전해진 문양 직물인 ‘파 새오’ 보다는 반 폰의 공예인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파 새오’는 물리적인 형식으로 반 폰의 아이들이 ‘프레 와’의 직조 기술 그리고 이 직물에 사용되는 문양들과 재생산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문양들의 의미들, 즉 기호들이 의미하는 민담, 전설, 신화 또한 전하고 있다. 이 ‘파 새오’는 실재하는 유산인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증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물이며, ‘프레 와’ 직물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록인 것이다.

태평양의 한 국가인 바누아투의 땅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의 ‘모래 그림’은 시조 설화, 가치 체계, 혈족 구조의 규범을 표상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예적인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인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그들의 신화 속 조상들이 겪었던 여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모래

그림은 바람이 불거나 누가 밟는다면 없어질 정도로 생명이 짧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록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과 무형문화유산의 저장고이다. 이러한 '기록'의 과정은 수십 년이나 수 세기가 아니라 오직 몇 분간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식 전승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누아투 모래 그림은 200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협약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RL=00085>).

미국 애팔래치아 산맥의 오자크 Ozark 고원의 거주민들은 지난 수 세기에 걸쳐 '발레 책 *ballet books*(민요 책 *ballad books*)' 을 썼다. 이 깊은 산 속의 사람들은 노래수집가들이나 민속학자가 방문하여 자신들의 노래들을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낡은 노트나 포장지에 조상들에게서 배운 전통 민요의 가사나 음표를 적어 이 노래들을 기록한 것이다. 아칸서스주 헤버 스프링스 *Heber Springs*의 민요 가수인 알메다 리들 *Almeda Riddle*은 1926년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첫 민요책이 불에 타 버린 것을 알고, 기억을 더듬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35년 후, 민속학자 로저 애브라함스 *Roger Abrahams*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민요책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 후 그 둘은 함께 '한 가수와 그녀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들을 종합 정리한 책을 집필했다. 하지만 리들 할머니는 자신의 민요책을 기록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책이 단순히 글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헤버 스프링스의 젊은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으며, 그녀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을 할 당시에도 늘 이 책을 가지고 다녔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공동체들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궤적을 기록하기 위해 글, 시각 이미지, 그리고 기타 기억 방법으로 기록을 남긴 예를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기록에 대한 욕구를 통해 기록 그 자체를 위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록들의 기록 방법 그 자체는 언제나 전승자가 체화하고 있는 지속적인 연행, 표상, 표현, 지식,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무형유산협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통적인 기록들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기반 혹은 공동체가 주도한 자가 기록 노력들이 있지만, 공동체 외부인의 기록 또한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인류학자, 민속학자, 민속음악학

자, 기타 문화 연구자들, 지역 행정관들, 지역 유지들, 그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은 어디에나 있지만 언제나 변화하며 많은 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와 같은 문화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당대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다. 19세기에 사진 기술과 녹음 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이 기술들을 사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한 무형문화표현을 유형으로 기록하는 데에 열성이었다. 미국의 인류학자 제시 월터 퓨키스 *Jesse Walter Fewkes*는 1890년에 파사마쿼디 *Passamaquoddy*와 주니 *Zuni* 인디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에디슨의 밀랍 실린더에 녹음했으며, 영국의 인류학자 알프레드 코트 해든 *Alfred Cort Haddon*은 1898년에 호주와 뉴기니 사이 토레스 해협에서 밀랍 실린더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곧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인류학자들 또한 자신들의 식민지나 자국 내 오지에서 이 새로운 방법에 따라 기록을 하였다. 퓨키스는 오늘날에도 익숙한 긴급성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매 년 인디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한다면, 몇 년 안에 그들의 관습 대부분은 크게 변하거나 영원히 사라져버릴 확률이 높으며, 때문에 그들의 노래와 의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것들을 잃기 전에 수집해야 하는 때이다.” (Fewkes 1890: 1095, 1098)

퓨키스와 해든 등의 연구자들은 보존의 필요성을 느껴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될 것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심지어 파괴되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기록만을 하였다.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무형유산협약의 정의에 의하면 ‘보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일종의 구출 작업처럼 여겨 기록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자료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덜 감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퓨키스와 해든 이후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에게는 음성 녹음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록 방법의 하나 — 책, 라디오, 그리고 필름과도 함께 — 가 되었고, 이 두 번째 세대들은 유산의 흔적들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전승과 연행의 지속을 촉진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퓨키스 이후 90년 뒤 미국의 국회 도서관은 그의 밀랍 실린더의 기록을 당시 최신 기술인 오디오 카세트로 변환하여 파사마쿼디 *Passamaquoddy*와 주니 *Zuni* 인디언들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기반을 둔 창조성을 새롭게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파사마쿼디어(語)와 주니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그들의 노래와 의식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국회도서관은 한 세기 전의 기록을 현재의 공동체에게 돌려줌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무형유산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기록이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 수단 — 푸키스가 행했던 것처럼 — 일 뿐만이 아니라, 무형유산협약의 정의를 따르면서도 유산의 생존을 확고히 하는 혁신적인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시각 인류학자 솔 워스 *Sol Worth*와 존 아데어 *John Adair*는 미국 남서부의 아리조나 주와 뉴멕시코 주의 나바호 인디언들이 무비 카메라를 잡게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처음 그들이 이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나바호 인디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필름에 어떻게 옮기는가가 궁금했으나, 곧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실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다수의 인류학적 영상 제작이 '우리에 의해' 제작된 '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워스와 아데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세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를 구출한다는 것이다.'" (Worth and Adair 1972: 254) 때문에 과거의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워스와 아데어는 또한 이렇게 적기도 하였다. "전기 — 다큐멘터리 형식을 교육받은 외부 사회의 예술가가 사용했던 이 매체를 통해 그들은 아주 상이한 신화, 음악 스타일, 극 구조, 그리고 사진, 시간, 공간에 대한 상이한 관념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매체는 한 문화를 다른 문화에 소개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 —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술'이라고 부르는 — 에도 잘 부합한다." (앞의 책, p. 262) 나바호 인디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형 문화유산 — 그들의 직조 기술, 은 세공, 치료 의식, 신화 — 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워스와 아데어는 정보와 통신 기술이 외부 연구자들에게만 독점되는 상황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공동체의 자기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워스와 아데어가 나바호 인디언들의 손에 카메라를 들려 줄 때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미국 조지아 주의 북동쪽 구석 애팔래치아 산맥 작은 외딴 마을의 고

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라빈 갭(Rubin Gap)은 자신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기보다는 제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1966년, 학생들은 음성 녹음과 사진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면을 기록하는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잡지 이름을 ‘폭스파이어(Foxfire(도깨비불))’라고 정했다. 카메라와 녹음기로 무장한 고등학생들은 그들의 조부모들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공예품과 요리법, 전통 의약품, 음악과 노래, 이야기 - 줄여 말하자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했다. 고유문화를 뒤쳐지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를 타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생존성 또한 심어줄 수 있었다. 이 잡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였고, 곧 한 시리즈의 전집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박물관과 문화 센터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학교들은 공동체 자가 기록과 세대 간 전승을 위해 이 ‘폭스파이어’ 접근법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동체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교실 밖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http://www.foxfire.org/teaching.html>).

위스와 아데어 같은 인류학자들의 접근 방법과 교사 라빈 갭의 방법과 같은 공동체 활동은 지난 15년 동안 공동체 기반의 참여 자가 기록과 자기표현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이는 ‘포토보이스’ 접근법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sup>1</sup> 포토보이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처음 1992년 중국 서남부의 윈난 지방에서 공공 의료 전문의 캐롤린 왕(Caroline Wang)과 포드 재단 관계자였던 매리 앤 배리스(Mary Ann Burris)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이들은 윈난 지방 소수 인종 여성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Wang and Burris 1997). 왕과 배리스는 소수 인종 거주민들이 직접 손에 카메라를 들고서 스스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묘사하며, 그들의 문제와 과제들을 기록하게 했다. 마을 여성들이 찍은 사진들에는 그들 스스로 설명을 달았으며, 이는 책자로 출판되고 전시회 또한 열게 되었다. 비록 이 첫 프로젝트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문화 종사자들은 이 접근방식의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챘다. 이 방법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기

1.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사진을 통한 문해(literacy through photography)’가 있다(<http://cds.aas.duke.edu/lt/index.html>). 이 방법은 폭스파이어 프로젝트처럼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은 뒤에 이 사진들을 말과 글 표현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한 기록이 문화 보급과 인식 제고 그리고 유산의 생존성을 확고히 하는 기타 방법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 자가 기록방법을 선구적으로 시도한 문화 단체는 베트남 하노이의 민족학 박물관이다. 선견지명을 지닌 이 박물관의 설립자 응옌 반 후이 *Nguyen Van Huy*의 리더십 덕에, 오늘날의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공동체들이 대중에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전통과 무형문화유산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이 박물관의 첫 번째 포토보이스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되었는데,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은 인류학과 학생 두용 비치 한 *Duong Bich Hanbi*이 몽 *Hmong* 족 소녀들에게 작은 카메라를 쥐어준 것이다. 베트남 북서부 산악지대인 사파 *Sa Pa*의 관광 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한은 과거에 수공예품 재활성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그녀는 베트남인과 외국 여행객들 그리고 몽족 여성들 사이의 접촉이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되며 어떤 방식으로 몽족의 직조 전통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들, 활동들, 그리고 일상 속 교류를 기록했다. 아이들과 각각의 사진들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때 아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표현했다.” 2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20롤의 필름이 소모되었으며 그 중 한과 박물관이 200장의 사진을 골라 2003년에 전시회를 열었고, 몽족 소녀들의 짧은 설명이 담긴 책을 출판했다.

이 박물관은 그 후 이 방법을 사용해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금은 베트남의 다른 박물관들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동원하여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례로 그 중 한 프로젝트는 수공예품의 지역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일부로 수행되었는데, 하노이 외곽 한 공예품 마을의 청동기술자들과 베트남 북부 산촌의 라오스 직조공들에게 자신들의 공예 전통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베트남인 사진가에게 교육을 받은 청동 기술자들과 직조공들은 자신들의 공예품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청동 기술자들의 마을에서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젊은이들이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기술들을 배우고 마을 어른들의 지식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Nguyen Kim Dung 2007) “포토보이스 접근 방법은 공예인들이 각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 덕에 젊은이들은 윗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었으며



전통 공예품에 대한 지식을 증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라고 텅(Dung)은 보고하고 있다.

직조공들은 사진 전시회를 자신들의 마을에서 열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익숙하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저평가된 수공예품들이 국내적, 국제적 관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시회 후반에는 이 행사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 마을보다 관광객들이 좀더 찾기 쉬운 관청 소재지에 같은 전시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세트의 사진 액자들을 주문해야 할 정도였다.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은 또한 하노이의 구시가지에서 포토 보이스 접근법을 이용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 거리의 거주민들에게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http://www.vme.org.vn/exhibitions\\_special\\_view\\_panos.asp?ID=57#Panos](http://www.vme.org.vn/exhibitions_special_view_panos.asp?ID=57#Panos)).

베트남에서 다시 바누아투로 돌아가 보자. 바누아투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보호 전략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 기록 과정을 진행한 박물관이 있다. 이 바누아투 문화 센터는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위한 ‘현장조사자(fieldworker)’들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 왔다. 이 지역의 현지 조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외국의 연구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할애한다. 때문에 기록 과정 그 자체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보호 노력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Bolton 1999).

이러한 현지조사자들 외에, 이야기들, 구전 설화, 의식과 기타 무형유산의 표현들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와 테이프 녹음기 또한 사용된다. 바누아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형유산들의 기록 중 상당수는 관습적인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이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누아투 문화 센터는 ‘터부 룸(Taboo Room)’이라는 이름의 보관소를 만들어 무형유산에 관한 다양한 매체 기록들을 제공하지만, 방문자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 부족의 특정 가문의 자손들, 또는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등급(grades)’을 얻은 사람만이 특정 종류의 지식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의 공동체 기록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잃을 수도 있는 미래 세대들이 무형유산 또는 특정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든 예시들은 어떻게 공동체들이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유형의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무형문화유산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무형문화유산을 동시대의 유형적인 것으로 변환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동체의 자가 기록 프로젝트들은 젊은 세대를 동원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젊은 세대는 최신 기술에 흥미를 가지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를 그들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성공하게 된다. 비디오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또는 헤드폰으로 인터뷰 내용을 세심하게 듣는 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고, 새로이 감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기록들을 보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파사마퀴디와 주니족의 음성 녹음을 90년 후 원래 공동체 구성원들이 돌려받게 된 예를 생각해보자. 세계의 많은 기록들은 후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생존에 기여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원래 기록의 목적이 이러한 효과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해도 말이다. 끝으로, 기록을 통해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동체가 동원될 수 있는지 마지막 한 예를 들고자 한다. 인터넷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들이 디지털화된 문화유산을 만들어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는 또한 기록된 이미지와 사운드에 대한 현 세대의 반응을 더해 기록 자체를 더 풍부하게도 한다. 국회도서관이 북아메리카 전역의 인디언들에게 녹음된 자료를 되돌려주었을 때, 도서관은 자료를 받은 공동체들에게 원 자료에 대한 주석과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박물관 수집품과 기록 보관소의 자료들에 대해 위키피디아와도 비슷한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에 올려진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에 의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기록과의 상호 작용은 공동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이다.

## 참고 문헌

Bolton, Lissant 1994.

\_ “The Vanuatu Cultural Centre and Its Own Community”. *Journal of Museum Ethnography* 6, 67-78.

\_ (ed.) 1999. *Fieldwork, Fieldworkers Developments in Vanuatu Research*. Oceania 60 special edition.

Duong Bich Hanh. 2003.

\_ *Through H'Mong Eyes*. Hanoi: Vietnam Museum of Ethnology.

Fewkes, Jesse Walter. 1890.

\_ Additional studies of Zuni songs and rituals with the phonograph. *American Naturalist*, November 1890. Cited from Jonathan Sterne, *The Audible Past: Cultural Origins of Sound Rep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Huffman, Kirk 1996.

\_ “Su Tuh Netan 'Monbwei: We Write on the Ground': Sand Drawings and Their Associations in Northern Vanuatu”. In *Arts of Vanuatu* J. Bonnemaïson, K. Huffman and D. Tryon (eds). Bathurst, NSW : Crawford House

Nguyen Kim Dung. 2007.

\_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Recent Years. *The 3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Japan*.

[http://www.tobunken.go.jp/japanese/symposium/report\\_sympo30th.html](http://www.tobunken.go.jp/japanese/symposium/report_sympo30th.html)

Wang, Caroline and Mary Ann Burris. 1997.

\_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 369-87.

Worth, Sol and John Adair. 1972.

\_ *Through Navajo Eyes: An Exploration in Film Communication and Anthrop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